

자조금 사업 활성화로 자립기반 마련해야……

□ 정리 / 김동진 기자

「본고는 본회 중계부화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 부회장 겸 중계부화분과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고있는 이언중 위원장을 만나 나는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최근의 중계·부화업계의 흐름은?

△ 이언중 : 지난해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중계부화업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 병아리 생산 부족으로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보기에 중계부화업자들이 큰 돈을 버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실을 정리하느라 아직까지 큰 고통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계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중계·부화업계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닭고기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시장상황을 깊숙히 파악하

여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계·부화산업의 당면문제를 언급해주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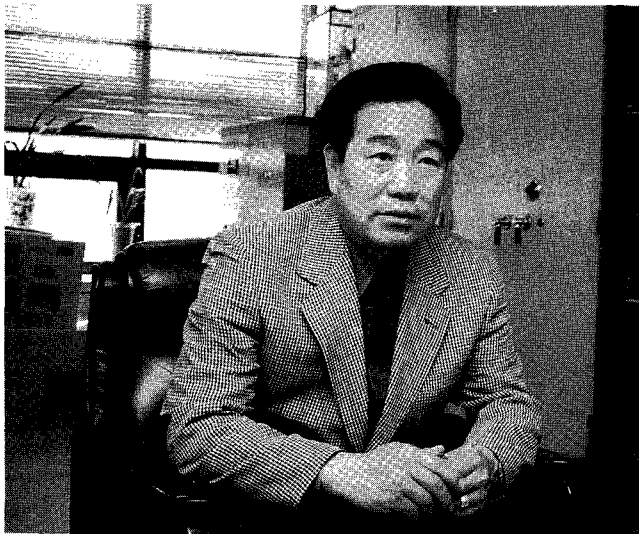
△ 이언중 : 현실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불법병아리(백세미) 생산입니다. 중계·부화업계에서는 농림부와 관련업체에 지속적으로 백세미 생산의 부당성을 제기해 왔으나 관계기관의 양성화 조치 움직임으로 국내 중계부화업계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최근들면서 농림부관계자들이 백세미의 부당성에 대해 점점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어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산조절 문제입니다. 현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듯하나 올 연 말부터 당장 병아리 과잉생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의 수집이 사실상 힘들었으나 올해부터 협회에서 병아리 조사사업

을 착수하면서 모든 정보가 회원 및 생산자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과잉생산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종계·부화장들의 단합과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 이언중 :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회장직을 맡으면서 이끌어온 종계부화산업발전 협의회가 종계·부화분과위원회와 통합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발협 해체와 관련 일부 종계·부화업자들이 아쉬움을 표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이언중 종계부화분과위원장

그러나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창고의 일원화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해나가지는데 있습니다. 종발협의 희생으로 종계부화산업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GPS업계와의 만남도 자주 만들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동안 종발협에서 맡아오던 일은 기존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PS친목회가 충분히 역할을 분담해 갈 것이며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 이언중 : 우리 생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업계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육계업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사업을 들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6월 한달동안 판매 병아리에서 수당 5원씩을 자조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병아리 생산량 조절 등 육계소비 활성화를 위해 쓸 계획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착사업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채란업계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협회를 구심점으로 생산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하니 만큼 그 동안 해왔던 힘을 더 모아 종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조직이 팀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고 종계를 맡아갈 전문인력도 보강되었습니다.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를 충분히 이용해주시길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양계